

제 82 호

발행일 : 서기 2004년 2월 16일 (월)  
창간일 : 서기 1983년 9월 26일  
구독신청 : (02)2244-3717, 2217-3717  
FAX : (02)2243-1073  
E-mail : andongkim9@korea.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태인  
편집인 : 김관목  
인쇄인 : 김성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112-49  
☎30-091  
홈페이지 : iandongkim.com

新年辭



多事多難 했던 癸未年을 뒤로 하고 甲申 새해 아침  
希望을 設計하며 宗親諸賢의 健勝하심과 高堂에 萬  
福이 充滿하시기를 敬虔한 마음으로 祈願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混亂이 거  
듭하였고 政治, 經濟, 社會 모든 分野가 순탄치 못

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颱風 매미의 天災가 겹쳐 아주 어려운 한 해였다고 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安東金氏 大宗會는 흔들림 없이 꾀꿉이 目的을  
向하여 맡은 바 所任을 다하고 祖上을 섬기는데 疏忽함이 없이 崇祖睦族의  
情과 誠을 다 하였기에 不斷한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宗親 가운데에는 아직도 지난 天災로 고초를 겪고 계신 宗親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직도 復舊를 못하신 宗親들은 하루 빨리 復舊되어 安定  
을 찾으시기를 懇切히 비는 바입니다. 아울러 會長이 직접 尋訪하여 위로  
드리지 못한 것을 有感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지난 고초를 말끔히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같이 悤心하여 그  
동안 못다한 宗事위업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지난 번 中始祖 忠烈公 時享에 京鄕各地에서 많은 宗親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參詣하시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회장은 感銘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아버님 影幀을 高麗朝의 官製服에 맞게 새로 製作하여  
奉安할 생각이며 다음으로 遺墟碑閣의 기와 補修事業 竹州朴氏 할머님 壇  
墓 돌레석 改修 등의 遺蹟 補修事業을 할 計劃입니다. 이러한 事業을 하는  
데에는 會長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하고 宗賢들의 悤意가 이  
루어져서 다 같이 同參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宗親諸賢의 宗사에  
많은 參與를 當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人材養成을 위하여 會長 金泰麟 冠名장학생 3명과 大宗會 장학생 1  
명을 選拔하여 장학금을 支給할 計劃입니다. 또한 사회 각 分野에서 자기  
에게 주어진 任務에 充實하고 國家 社會에 貢獻함이 커 社會의 龜鑑이 되  
고 門中의 位相을 높인 宗親들을 發掘하여 자랑스런 安東人을 指定하여 表  
彰하고 宗會 發展에 寄與토록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우리 宗親들은 和合과 團結로 한 길을 밟아 邁進하여 先祖英靈  
앞에 떳떳한 後孫이 되도록 努力할 것과 다시 한번 宗親 家家戶戶에 光榮  
이 充滿하시고 健勝하심을 祈願드리며 頭序없이 새해 人事에 가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4년 1월 1일 새해아침에

安東金氏 大宗會 會長 金泰麟 拜上

忠烈公 考妣位 時享大祭 悤속히 奉行



지난 11월 2일 경  
북 안동에서 悤렬공  
할아버지 할머니  
양위 분 시향대제를  
경향각지에서 온  
300백여 종친들이  
참여한 가운데 執禮  
의 悤홀에 따라 悤  
속히 奉行 하였다.

금년 시향은 悤렬  
공 할아버지께서 서

거하시던 730주년 되는 해이며 또 飲水齋와 影幀閣 개축 2년째가 된다.  
飲水齋 진입로와 바깥 마당을 시멘트 포장하고 재실 안마당과 영정각 마당  
에 자갈을 퍼는 등 재실 전체의 淸화사업을 모두 말끔히 마치고 시향대제  
를 올리게 되어 悤례자 모두 흐뭇한 마음으로 향사에 임하였다.

이 사업은 수차 회장단 회의를 거쳤으나 예산이 없어 시행치 못하고 있던  
차에 泰麟 회장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일금 2천만원을 淸澈해 주시어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소요된 금액은 970만원이었고 나머지 1030만원은  
별도로 예치해 두었다.

이날 향사를 마치고 사무국장은 공사개요를 悤석종친께 보고하고 모든 悤  
인은 큰 박수로 회장님께 悤례하였고 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었  
다. 전 悤인은 회곡동으로 가서 竹州朴氏 할머님 壇墓에서 향사를 올린 후  
에 悤심식사를 마친 뒤 각기 귀향길에 올랐다.

이날 享祀分定은 다음과 같다.

忠烈公 享祀分定

初獻官 태인 대총회장, 亞獻官 도평의공과 학수, 終獻官 익원공과 회장 명  
희, 陳設 익원공과 석교, 讀祝 도평의공과 장수, 贊者 익원공과 동수, 贊人  
제학공과 용두, 奉香 도평의공과 호석, 奉爐 익원공과 명희, 司樽 익원공과  
성식, 封爵 제학공과 태옥, 奠爵 제학공과 용규, 時到 익원공과 만길

竹州朴氏 할머님 享祀分定

初獻官 태인 대총회장, 亞獻官 재석 군사공과 회장, 終獻官 익원공과 현목  
이하 執事는 忠烈公 향사 집사와 같다.

謹 賀 新 年

甲申之年은 昇天之勢로 萬事亨通하시고 四時常靑康寧하시고 延年益壽無疆하소서

고 문: 在哲 군사공과 元會 군사공과 東哲 부사공과  
在承 문은공과 用秀 도평의공과 相勳 제학공과  
相蒙 제학공과 相祚 제학공과 在基 안림사공과  
在鶴 안림사공과 好振 안림사공과 泰亨 익원공과  
明會 익원공과 在憲 익원공과 吉成 익원공과  
明燮 익원공과 俊會 익원공과 寬浩 서운관정공과  
信 익원공과 次會 익원공과 達會 익원공과

부 회 장 : 榮應, 相國, 在錫, 根成, 圭章, 琮會, 鳳基, 聲秀, 相會,  
永默, 奉善, 在澤, 永會, 在峻, 洙鎮, 鶴應, 聖植  
감 사 : 榮煥  
이 사 : 在英, 昌植, 鴻洙, 在坤, 承會, 台鎬, 秀吉, 光道, 在熙,  
鳳會, 廷秀, 澄秀, 相天, 奎馨, 南應, 瀚拭, 在鴻, 泰赫,  
龍植, 在均, 會潤, 魯振, 泰厚, 在起, 榮俊, 昊植, 太圭,  
泰英, 泰哲, 在光, 容世, 璿會, 滿吉, 圭冕, 範植  
사무총장 : 觀默, 상임祭有司, 鳳洙

명회회장 : 璨會  
회 장 : 泰麟

### 送年會長團會議開催

지난 12월15일(수요일) 大宗會 회의실에서 送年會長團會議를 개최하였다.

먼저 신임 사무총장 인사 소개 및 추천경과 보고와 사무총장의 수석 부회장 추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주요 안건인



1. 忠烈公影幀製作의 件
2. 檜谷洞壇墓 돌레석 교체
3. 冷平國大夫人檜谷洞遺墟碑閣, 기와보수
4. 碑閣 옆 발뚝 石築工事 등의 위선사업을 協議한 바 影幀제작은 會長님께 위임키로 하고 그 외 3件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實施키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2004年度 獎學生 選拔방법에 대해(이미 공문으로 각 파에 시달렸던 내용)을 확인한 다음 總會場所, 장한 安東人 지정 및 孝行賞 표창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총회 장소는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白凡기념관에서 함을 만장일치로 합의고 회의를 마쳤다.

### 제2회 忠武公 金時敏將軍 宣揚 學術 심포지엄 성대히 거행



지난 2003년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남 천안시 천안문화원 소강당에서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 사업회(회장 허용기, 부회장 김남웅)가 주최한 <제2회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선양 학술심포

지엄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천안 각 기관장 및 지역 인사와 안동김씨 종친을 포함하여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우리 종친들로는 태인 대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충남 병천과 괴산의 제학공파 종친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학 교수와 문화재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주제발표자들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전투와 충절정신을 재 확인하고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의 충무공 유적 등을 재조명하였으며, 충무공의 정신을 선양하고 유적을 정비, 복원하거나 문화재로 등재하여 장군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방향 등을 연구 발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기념사업회와 지역 종친회에서는 충무공(병천 가전리)에 대한 문화재 등재와 생가 건물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충무공의 충절정신과 업적을 널리 선양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이날 위 기념사업회의 부회장이신 남웅종친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선양 사업에 대한 우리 종친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간절히 당부 하였다.

기사 제공자 恒鏞(제)

### 消 息

문은공19대손 김재권(金在權) 주식회사 효진종합건설 대표이사께서는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가 있어 지난 2003년 12월 31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에 축하를 드립니다.

편집부

### 訃 音

대총회원로고문이시며 안림사공파회장을 역임하신 재화(在華)고문께서 노환으로 2003년 11월 24일 별세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슬하에는 嗣子 瑾會, 次子 璨會, 三子 璵會이며 삼녀를 두시어 六男妹를 두었다.

### 泰麟會長 檀國大學校에서 名譽經濟學博士 學位領得



金泰麟대총회 회장은 지난 11월 3일 오전 11시 檀國大學開校56周年 기념식에서 韓國海運産業發展과 國際로타리에서의 社會奉仕功勞賞을 인정받아 名譽經濟學博士 學位를 領得하였다. 이날 式典에는 우리 안동김씨 사이버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會長은 다음과 같이 답사를 하였다.

#### 정신의 힘 삶의 가치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 인류의 미래에 희망의 등불을 밝힌 미국의 의학자 조나스 소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훌륭한 선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스소크의 이 한마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세워놓은 이 땅에서 신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에 대한 우리 자신의 빛을 최대한 갚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진일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우리 문명을 성취해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새로운 청사진을 펼칠 때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 진 소임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세우고,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억 만금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실천 적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수 없이 되풀이 하며, 끝없는 미로(迷路),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두려운 길, 낯선 길, 볼 수 없는 길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에 부딪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막막한 자신의 삶과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하는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역사적 물줄기를 돌리고, 세상을 바꾼 빛나는 업적 뒤에는 반드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윌리엄 엘러, 존 에프 케네디, 빌게이츠 등은 역사적인 전환과 전진을 일궈냈습니다.낮은 오두막집의 가난한 소년 에브라함 링컨은 차가운 마루바닥에 누워서도 꿈을 잃지않고 책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꿈은 그가 누워 있는 차가운 마루바닥을 따뜻하게 덥혀 주었고, 장작불의 깜박거리는 불빛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빛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결과 그 꿈은 마침내 피오리아연설로 첫발을 떼었습니다. 노예제도는 인간의 이기심이 낳은 제도의 산물이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파산직전에 몰린 보잉사의 윌리엄 앨런 회장은 직원의 80%를 감원하는 고통을 감내하며 터보제트엔진의 항공기를 띄워 세계를 제트시대 로 돌려놓았고, 뉴프런티어의 꿈을 품은 존 에프 케네디는 암스트롱을 달나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시대를 지배하는 윈텔 제국(미국의 인텔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 축을 이루는 MS의 빌게이츠는 지구촌의 모든 가정과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기 위해 하버드를 박차고 나와 MS제국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왜소했던 한사람이 이 바람직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때 그 비전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 수많은 사람의 비전이 되고,하나의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어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우리는 이제 이러한 지도력의 햇불을 미래로 옮기는 신세대들에게 주목해야합니다. 신세대들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세대와 함께 신세대를 위해 일함으로써 미래를 이룩해 가야합니다.

위대한 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거나 미래가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대를 개발함으로써 다음 세기를 향한 비전을 자랑스럽게 옮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창조적인 발상과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격변하는 시대의 물결을 헤쳐가는 내일의 지도자인 신세대를 위함으로서 밝은 미래는 분명 이룩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산을 옮길 수도, 바닷물을 마르게 할 수도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비전입니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오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면된다'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아리는 스스로 껍질을 깨고 부화합니다. 누군가 도와줄 요량으로 그 순간을 방해한다면 병아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껍질을 깨기까지의 따뜻한 어미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세대가 껍질을 깨는 것도 홀로 하는 작업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고 대신 해 주어서도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꺼낸 잠재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성공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비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 정간공 영삼사사공 안렴사공 3위 시제 봉향

2003년 10월5일(음)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현지에서 정간공(휘 永熙) 영삼사공(휘 葦)안렴사공(휘 士廉)의 시제를 후손 약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하였다. 이날 시제에는 안렴사공, 익원공, 서운관정공 3파 후손들과 제학공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후손들이 참여하여 선조의 추모지님을 경건히 봉행하였다.

이날 헌관분정은 다음과 같다.

- 정간공 초헌관 : 재준 (서운관정공파 회장)  
아헌관 : 영만 (안렴사공파)  
종헌관 : 학용 (제학공파, 문영공종회 회장)
- 영삼사사공 초헌관 : 기희 (익원공파)  
아헌관 : 관목 (안렴사공파)  
종헌관 : 규면 (서운관정공파)
- 안렴사공 초헌관 : 태인 (안렴사공파, 대종회 회장)  
아헌관 : 용식 (안렴사공파)  
종헌관 : 태선 (안렴사공파)

### 典書公 派譜發刊

典書公派에서는 총회에서 派譜發刊事業을承認받아 派譜發刊編纂委員會를 결성하여 收單을 접수하고 있으니 全國에 散在한 後孫들은 相互連絡하여 이번 派譜는 漏譜되는 분이 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大宗會報를 통하여 公告하나이다.

연 락 처: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파보편찬위원회 사무장 김수희  
전화자택 : 041-867-2489, 핸드폰 011-401-2489  
파보편찬위원회 회장 金根成  
연락전화 : 041-542-1280, 핸드폰 011-409-3009  
전서공파 회장겸 파보편찬위원장 金根成白

### 正義公 事蹟碑時祭奉行



2003년 11월 1일(음 10월8일) 안동시 임동면 동평리 所在 公의 사적비設壇에 40여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시향을 봉행하였다.  
崇慕向念으로 派祖의 尊靈을 설단으로 모신지 2년이 된 오늘 初獻官 宗孫 範埴, 亞獻官 派會長 수진, 終獻官 顧問 允會가 獻酌하고 이어 중무보고를 한 후 점심을 마치고 우리 안동김씨 정의공파의 무궁한 발전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歸路에 올랐다.

### 開城尹公 時祭奉行

2003년 12월 12일 일요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開城尹公 壇墓에서 후손 30여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향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면서 開城尹公派宗會總會를 개최하여 決算報告를 마치고 數年間 종사에 勞苦 많은 泰福總務에게 감사패와 開城尹公宗事와 享祀준비를 늘 맡아서 獻身努力한 宗親女에게 孝行賞을 수여하여 敦睦을 두터히 하였다.

###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 ■ 통상회비

- 10만원: 재흥(익)
- 5만원: 용해(익), 세용(익), 팔목(전), 재훈(안)
- 3만원: 재희(부), 장용(계)영일, 재복(익), 봉수(익), 원일(익), 수돈(익), 태현(계), 철희(익), 천희(안), 원목(안정), 기호(부), 명희(익), 정목(익), 장용(계)증평
- 2만원: 중희(밀), 일희(익), 태철(계), 동희(익), 재국(전), 홍식(안), 태욱(문), 현철(문), 노수(익), 남희(익), 수일(부), 효성(익), 선진(안), 광희(익), 윤희(익), 태훈(익), 태환(계), 영목(안), 명식(계), 경찬(익), 낙희(익), 준교(전), 재경(군), 장경(안), 태호(익), 종목(밀), 병만(안), 창희(익), 철호(서), 창식(계), 인희(익), 학목(군), 태웅(계)
- 1만원: 태호(부), 용식(안), 진창(익), 용득(익)
- 5천원: 재희(문)

計 1,425,000(원)

#### ■ 평생회비

- 20만원: 이행(익), 창우(익), 갑희(안)

計 600,000(원)

#### ■ 찬조성금

- 10만원: 희택(도), 강릉총회낙서회, 재선(안)
- 5만원: 상용(익), 명희(문), 관호(서)
- 3만원: 태웅(군), 재환(익)
- 2만원: 종목(밀), 윤환(익)

計 550,000(원)

#### ■ 찬조금명단(총렬공시향시) (2003.11.2)

안	태인 (대종회회장)	1,000,000	군	영득	50,000
	문영공종회	300,000		재흥	50,000
익	문정후 참의공종중	200,000	도	영수	50,000
군	철정종중	200,000	군	만희	50,000
	인천시종친회	200,000	군	홍수	50,000
	밀적사공파종회	100,000	익	강식	50,000
	개성윤공파종회	100,000	익	효식	50,000
	안렴사공파종회	100,000	익	태규	50,000
	익원공파종회	100,000	안	태영	50,000
	서운관정공파종회	100,000	계	상철	50,000
	문은공파종회	100,000	도	호석	50,000
	정의공파종회	100,000	계	용두	50,000
	대구종친회	100,000	익	재갑	50,000
	안사연	100,000	계	양년	30,000
문	별제공포천종중	100,000		용재	30,000
군	경기파주광탄종중	100,000	익	지식	30,000
군	준희	100,000	안	윤식	30,000
	제학공파종회	50,000	익	성식	30,000
	안동시종친회	50,000	전	재석	30,000
	청주시종친회	50,000	익	영수	30,000
군	양천종중	50,000	합계		4,160,000

### ♣ 향전원에 ♣

대표 김재균  
(경조화환 / 화분)

전화

783-3166

783-3167

780-8477

팩스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 1.2호)

### 홍제병원 원장 김광식

#### 진료과목

정형외과 / 일반외과  
내과 / 소아과  
대장항문외과(치질 / 치루)  
물리치료  
종합건강진단

자동차보험  
산재재해보험  
의료보험  
교통사고상담  
산업재해상담

#### 진료시간

평일 : 오전9시~오후7시  
토/공휴일 : 오전9시~오후5시  
일요일 : 오전10시~오후5시



### 신임사무총장 임명



2004년 1월5일 오전11시에 회장님과 서울시내에 계신 부회장님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임사무총장 임명식이 있었다. 신임사무총장은 안림사공 18대손 김관묵(金觀默)현종으로 그동안 대종회에도 많이 참여하셨던 분으로 고향은 충남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광기마을로 안림사공 6대손 참봉공 휘 公彦의 후손이다. 김관묵(金觀默)현종은 재경참봉공 중종의 회장을 수년간 맡아 중증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분이시다.

#### 약력

생년월일 : 1937년 7월 25일생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703-102 별빛마을  
 1956년 3월 청주고등학교 졸업  
 1960년 2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1964년 11월 육군만기제대  
 1992년 7월 제일화재(주) 사업소장 정년퇴임

### 장학생 추천 심의결정

2004년도 1월 19일 대종회 사무실에서 2004년도 안동김씨 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

이날의 심사위원에는

- 문영공종회장 金鶴應
- 익원공파회장 金永會
- 정의공파회장 金洙鎭

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金三星 : 익원공 24대손
- 金辰英 : 제학공 24대손
- 金버들 : 문은공 18대손
- 金泰賢 : 안림사공 21대손

## 안동김씨의 행정구역(시.군.구)별 인구(2003.2.13 통계청 발표)

이 자료는 2000.11.1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인구주택총조사] 성씨 본관별 자료중 우리 (선)안동김씨에 관한 자료입니다.

안동김씨의 인구는 1985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의 조사시 95,736가구에 398,2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 통계청 조사시 132,645가구에 425,264명으로 조사되어 본관별 성씨 순위로는 18위이며, 1985년 이후 15년동안 36,909가구 27,019명이 늘어나 안동김씨의 인구는 6.8%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우리 안동김씨는 1가구당/평균3.2명이 거주하며, 서울, 경기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있으며, 다음으로 경북, 대구, 부산, 충북, 인천 순으로 많이 살고 있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각 도시별 인구 사항

행정구역	가구수	인구수(명)	행정구역	가구수	인구수(명)
전국	132,645	425,264	울산광역시	2,666	8,887
읍단위	10,705	34,350	경기도	26,337	87,728
면단위	16,751	48,855	강원도	5,277	16,050
동단위	105,189	342,059	충청북도	8,111	25,397
서울특별시	26,778	94,981	충청남도	5,714	17,932
부산광역시	8,476	27,861	경상북도	13,999	41,780
대구광역시	10,040	32,603	경상남도	6,144	19,516
인천광역시	7,396	24,279	전라북도	2,666	8,274
광주광역시	850	2,937	전라남도	1,123	3,787
대전광역시	3,774	12,312	제주도	294 9	40

## 정부주도 호주제폐지에 대한 부당성 2004년 1월28일 씨족총연합회 총회 격려사

### 세계정치철학회장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金大忍)

한국씨족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白鐵禹 총재님을 비롯한 한국씨족총연합회의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로 한국 전통가족제도의 보존과 가족문화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셨던 바, 그 애국 애족적 활동에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에 따르면, 무릇 현대국가의 정부는 혼인 가족제도 등 모든 文化現象에 대해 불평부당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을 완성해 나아가며,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의해 가꾸어진 한국의 결혼 가족제도의 문화국가적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러한 문화국가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바, 헌법전문, 제9조, 제69조와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5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그리고 제22조 등이 그 주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성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7개 정부부처와 여성단체연합, YMCA, YWCA,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까지 구성하여 국민현세 900학원(?)을 낭비해 가며 한국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호주제와 가족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KBS, MBC 등 국가기간방송까지 나서서 노란손수건 등 실제생활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作爲的이며 전혀 무리한 구성으로 호주제폐지를 위한 문화폭력까지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본인은 지난해 이미 前 의원 등의 호주제폐지 내용의 민법개정안 발의이후 지금까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결함하여 KBS 100인 토론, 國會

報, 한나라당 주체 민법개정안 공청회 등 언론과 토론회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호주제 수호를 위한 여론형성을 위한 국내외학술대회, 전국순회규탄대회, 반박이론을 상세히 담은 국민홍보용 책자발간 신문성명서 발표 등 최소한의 비용만 있어도 막강한 정부의 예산과 공권력으로 밀어 부치는 포퓰리즘적 일방적 호주제 폐지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을 텐데, 力不足한 상태에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특히 昨수 헌법재판소에 繫留되어 있는 호주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 직전에 헌법재판소의 의견조치에 회신이라는 명분으로 호주제도가 마치 구시대의 遺物이며, 과학적으로도 미개하고 원시적인 것이라는, 어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생물학자의 주장이 반론의 기회도 없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열성유전자로만 인식되어온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가 X염색체와 달리 자신의 고유정보를 전달하는 유전자임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 밝혀졌고, 그 학자가 모른 채 하고 주장한 미토콘드리아 (mitochondria)는 여성의 것은 물론 남성의 것도 유전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으며, 그 母系性遺傳도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 언론을 통해 무슨 대대난 과학적근거라도 되는 듯이 모든 매스컴에 대서특필되는 것은 정부의 조종이나 조작 내지 某種의 검은 거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혹을 짚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2004년은 한국가족제도에 있어 지난 1990년에 이어 또 한번의 위기를 맞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호주제 위헌 의견을 근거로 하여 국무회의 통과를 압박하여

목적 달성한 호주제폐지추진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호주제 위헌결정을 내리기를 독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근거로 하여 4.15 총선 전 4년 임기만료로 가장 열악한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낙선운동 등으로 압박하여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악안을 제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는 지금이 舉族의 舉國의 적극적인 호주제폐지반대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전통가족제도를 위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이미 전통적 의미의 가족개념이 없어진 西歐의 병든 제도를 본받아서 토인비(Toynbee), 헌팅턴(Huntington), 다니엘 벨(Bell, Daniel) 교수 등 세계의 願學들과 西歐人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총력을 다해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1인 시위는 물론, 가족제도 지키기 총력기대회 1천만 서명운동, 전국순회규탄대회 등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맹인과 같다(탈무드, Talmud)라는 말과 같이 전통이나 관습, 가족제도는 수천년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혜로운 선택으로 계승 발전되어 온 것이며 가족법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 개정의 문제가 아닌 개인, 사회, 국가 전체의 행불행, 성공실패, 안정과 혼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10년 20년 걸려서라도 역사와 민족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사,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한국에는 남성우월적, 봉건적인 의미의 家父長制라는 것은 역사상 있지도 않았고 현재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제도를 家父長的이라고 매도하는 현실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UN 등 국제기구에까지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주역(周易)의 風火家人卦에 나오는 대로 여성존중주의적 가족관을

견지하고 있으며, 가족은 생존의 현장에서 상처 입고 돌아와 쉼을 얻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태산함괘(澤山咸卦)의 뛰어난 예지(叡智)의 결혼 가족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과 결혼 문제를 개인의 행복과 사회통합의 기능까지 실현하는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大學의 三綱領 八條目은 道요 治國의 道로서 三綱領의 新民思想 또한 먼저 가까운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에게(子庶民) 그 범위를 넓히는 中庸 등의 親親思想을 더욱 충실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修身과 齊家是 한나라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개 凡夫라 하더라도 소중히 하고 발전시켜야 할 큰 가치로서 충실한 개인, 원만한 가정, 화합된 사회를 위한 교육철학, 정치철학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은 설사 호주제도가 제2의 창씨개명파 같은 폭거로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관하고 있는 民族教育院(아카데미)을 중심으로 하여 가칭 한국가족문화UNESCO登載推進會를 여러 국가 사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결성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宗家文化, 고유전통 명절풍속, 효경 등 가정교육 사회철학서 등의 고전과 孝文化 등을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世界無形遺產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오늘 참석하신 한국씨족총연합회 중증대표 체현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갑신년 새해에 白鐵禹 총재님을 비롯한 한국씨족총연합회의 행운을 거듭 기원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가족제도에 호주제를 국민적 합의없이 폐지하여 파괴하려는 정부당국과 물지각한 세력에 대항하여 한국씨족총연합회가 大學의 金言처럼 일인사 일인정국(一言事 一人定國)의 각오로(단 한분이라도?) 千軍萬馬와 같은 힘을 보태 주실 것을 仰請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 제15회 도산(島山)의 밤 行事舉行



도산아카데미연구원이 주체하고 흥사단, 도산 안창호 선생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제15회 도산의 밤 행사가 2003.11.6(목)19:00시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강영훈 전 총리 내외분,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내외분, 안병욱 숭실대학교수, 손봉호 서울대학교수 등 많은 내빈을 모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번 도산의 밤 행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12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여서 더욱 뜻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백두권 도산아카데미연구원 백두권 원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영상으로 보는 도산', '도산 특별상수상',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축하공연', '만찬과 대화', '경품추천'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특별상 시상 및 감사패 전달은 도산아카데미 이사장이신 김태인 대총회 회장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김씨 싸이버 종친회에서도 다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 제37회 定期總會 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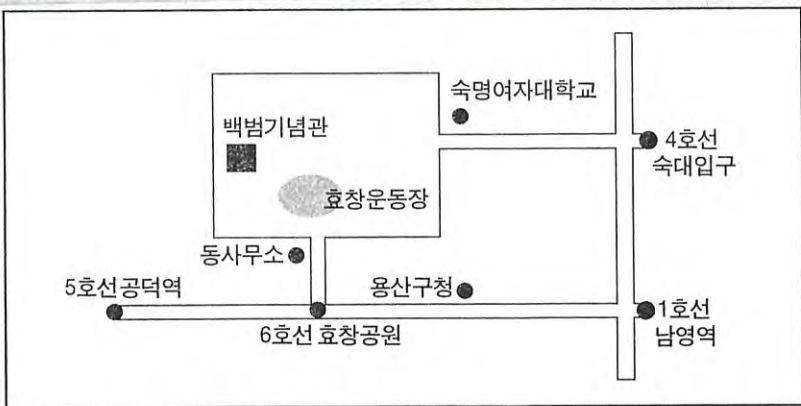
2004년도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인근종친과 상호 연락하시어 많이 참석하심을 양망하나이다. 宗婦들도 같이 참석하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일시 : 2004년 3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전화 : 02-719-1311~2

#### 회의안건

1. 2003년도 會計決算 承認
2. 2004년도 歲入, 歲出 豫算 承認
3. 2003년도 事業報告  
가. 飲水齋 進入路 시멘트포장 및 마당 자갈 포장 공사  
나. 회관 301호 수리공사
4. 2004년도 事業計劃 承認
5. 其他事項  
당일회비 25,000원

서기 2003년 2월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泰麟 白



### 제35회 익원공파종회 정기총회 개최

일 시 : 2004년 3월 12일 (금) 11시 (대총회 총회 전일)  
 장 소 : 태양의 집(선프라자)3층 (영등포구 대림동 전화 02-835-4000)  
 태양의 집 : 전철 신봉역(7호선) 3번출구 신길5동 우체국방향 보도3분  
 사무실 : 전철 대림역(2호선) 8번 출구 (7호선)12번 출구  
 전화 : 836-5631(충무휴대전화연결)

※총회가 끝나고 동추공 파종회 정기총회, 문정공 파종회 정기총회 개최

### 花山君(휘澍)과 寓菴集(우암집)

花山君 金澍(김주)

1512(중종 7)~1563(명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응림(應霖), 호는 우암(寓庵). 按廉 使公(휘士廉)의 후손으로 安原君(휘公亮)의 아들. 1531년에 진사가 되고, 1539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1541년과 1544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외직으로 경기도사, 관북어사, 경기어사, 남양(화성)부사, 한성부 우윤, 전라도 관찰사, 개성부 우수, 황해도 관찰사, 한성부 좌윤을 지냈고 내직으로 의정부 등에서 여러 벼슬을 거쳐 이조좌랑, 우부승지, 병조참판, 좌승지, 이조.예조 참의, 도승지, 대사간, 부제학, 대사성, 이조.호조 참판, 동지중추부사, 장예원 판결사 등을 지내고 예조 참판, 홍문관 제학, 도총부 부총관에 이르렀다.

1553년 사은사로 연경에 다녀왔고, 1563년 제학으로 있을 때 종계개정진정사겸 진하사로 연경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였으나 그곳 玉河館에서 병들어 졸하였다.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1565년 여주 백양동 선영에 장사지냈다. 1590년(선조 23년)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으로 화산군(花山君)에 추봉되었고, 1790년 이복원(李福源)의 시장(諡壯)으로 문단(文端)의 시호를 받았다.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문하로 이황(李滉), 김인후(金麟厚), 임형수(林亨秀) 등과 교유가 깊었으며, 문장에 뛰어나 오상(吳祥), 민기(閔箕), 정유길(鄭惟吉), 심수경(沈守慶) 등과 함께 8문장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초서를 잘 썼는데 우암유집, 근묵, 정신문화연구원 등에 필적이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암유집>이 있다.

화산군 문집 간행

#### 1) 詩文集 7冊

화산군께서는 조선 8문장의 한 사람으로 꼽혔던 만큼 많은 작품을 남겨 自編인지 후손에 의해 편찬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詩文集으로 家傳되어 오던 것이 7책이었는데, 왜관과 호란을 겪는 와중에서 대부분 유실되었다. 다만 南龍翼(남용익)이 만든 箕雅(기아)와 邑誌에 저자의 작품이 실려 전하고 있을 뿐이었다.

#### 2) 初刊 木版本 寓庵遺集(우암유집) 7권 1冊

이를 안타깝게 여긴 6대손 楸(래)가 집안 내에 소장되어 있던 禁應製詩, 저자가 方伯으로 있을 때 관내 州縣의 亭宇에 題詠한 것, 成川圖記, 論, 表 등을 모으고, 소재집 등에 나오는 저자에 관한 기록과 楸의 종질 得顯(득현)이 수집한 자료를 합하여 遺事를 만들고, 李福源(이복원)의 序를 받아 모두 7권 1책으로 엮어 을유년(1789, 정조13년)에 木版本으로 간행하였다.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고, 榮煥(문, 대총회 감사)도 1책 소장하고 있다.

#### 3) 重刊 木活字本 寓庵集(우암집) 6권 3冊

그뒤 후손 前 外部主事 文演(문연)이 세상에 전하고 있는 乙酉本의 소략함을 한탄하여 다시 諸家의 家藏, 名山의 藏 등에서 저자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 후손 曹演(주연) 등의 도움을 받아 6권 3책의 木活字本으로 중간하였다. 여기에는 書, 疏劄(소차), 啓(계)가 새로 들어가고 詩와 銘, 論이 추가되고, 부록으로 表陰記와 神道碑銘 등이 새로 들어가고 遺事가 증보되고, 年譜가 새로 들어갔는데, 文演은 書牘(서독), 箴(잠), 頌(송)이 미비함을 애석해 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소장되고 있다.



### 寓菴集(우암집) 國譯 公告

花山君(휘澍) 중종회에서 2004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寓庵集(우암집) 國譯 發刊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화산군 후손을 비롯한 모든 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히 화산군 후손중 家內에 소장하고 있는 화산군 遺稿나 遺品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료제공, 대금납입 등 국역 작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모든 종인들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 청 : 2004. 2. 27일까지
- 대 금 : 번역본 10만원, 영인본 5만원
- 계좌번호 : 제일은행 210-20-239418, 화산군중종회장 김태영
- 연 락 처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15-108 金容周 (02-469-0907, 011-9703-6344)

2004년 1월 1일, 화산군 중종회장 泰永 배상

# 폐지된(될) 듯이 보도하지 말아야

## 호주제 폐지되면 부부 가족해체, 청소년 노인문제 심각

- 아직 호주제 폐지는 행정부안에 불과, 국회의 법개정 절차가 남아있다.
- 대다수(90 이상) 국민은 호주제 폐지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 대다수(272명 중 찬성은 60여명뿐) 국회의원도 우려, 반대하고 있다.

1. 한국의 가족제도는 세계석학들이 감탄하며 세계제일의 가족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 세계의 가족제도들 가운데서 한국의 가족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건전한 가족제도라고 평가한다.

- 다니엘 벨(Danielen), 하버드대학의 사회학교수

나) 한국의 가족제도는 동양의 가족제도 가운데서도 특히 부부간의 평등관계에서 일본과 중국의 가족제도를 훨씬 앞서가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하버드대학의 정치학교수

다) 3대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한국의 가족제도가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확신한다 죽을 때하나 가져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 라고 묻는다면 서슴치 않고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져가고 싶다.

- 아놀드 토인비(Amott Toyndee), 20세기의 석학 영국의 사학자

라) 한국의 가족제도가 말로 21세기를 살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 와그너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 가족학

마) 한국의 가족제도가 세계에 실현될 때 세계는 행복해질 것이다. - 케이지 교수 영국 가족학

2. 가족, 가족제도는 인류학, 사회학, 윤리학, 정치철학, 헌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20여 분야, 주역의 가족관, 대학, 맹자, 중용, 효경 등에서 강조하는 교육, 효철학, 사회윤리, 정치철학으로서의 친친(親親)사상 등의 공부도 해하하는 종합적 연구분야인데, 정부와 일부 단체들이 호주제 탓이 아닌 문제까지 호주제 탓 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몰아붙이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모욕 협박(?)하는 것이 마치 모택동의 문화혁명같고, 일제의 창씨개명 같다, 내나라 내민족 민주정부 하에서 이게 무슨 형태인지 놀랍다. 한국의 가족제도를 고치고자 한다면 먼저 서구의 가족과 동양 특히 한국의 가족문제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가족과 중세 봉건영주시대의 가족제도 즉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가족구성원을 구속 착취 지배하던 소위 가부장 제도의 실상과 그로 인해 가정, 가족이란 매우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어서, 홉스(Hobbes) 로크(Lodoe) 루스(Rousseau) 베버(Weber)등이 가족해체를 외치며, 폭정일지라도 오히려 정부의 지배를 원했을 정도이며, 극단적 개인주의로 최근의 미, 영, 불, 독 등은 이미 가족이 해체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런 가족은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 가족제도는 2500년 전의 가족에 관한 지혜가 담긴 주역에서부터 가족을 1삶의 안식처라고 하며 2여성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 하면서, 가족의 발전과 가족구성원의 성공을 위한 교육에는 3부부, 부모 자녀간은 애정으로 결합된 집단이므로 위엄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가르치지않아도 알수 있고(良知) 행할 수 있는(良能) 가족간의 사랑 특히 부모에 대한 자연스런 사랑을 이웃과 사회에 확산시키자는 친친사상(親親思想)드의 가정교육에 의한 따뜻하고 숭고한 일심동체 개념이 곧 한국의 가족관의 근간이다.

그런데 호폐론자들은 서구적 부정적 가족관계에 빠져 가족해체를 주장(사실상)하고 있으며, 이미 대가족제는 물론이고 소가족제도 마저 거의 붕괴

되고 있다고 단정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실질적인 대가족, 전통가족문화 속에 있으며, 여전히 경노효친사상 등으로 애국애족심이 남다르고, 이는 60-70년대 비약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박세리, 김미현 등의 골프 소식 또한 한국의 가족제도의 힘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분석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는 위력을 잃지 않고 있다.

3. 정부(법무부 민법개정안)는, 형행 민법상의 가족제도(소위 호주제)는 첫째,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위반했다고 하며, 둘째,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며,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남녀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동거자, 동성애자 가족 등을 담지 못하므로, 현 호주제를 폐지하는 요지인데, 먼저 양성평등 위헌론은 타산적 집단이 아닌 헌신적 애정결집체인 부부 가족에 합리적 차별과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기계적 평등만을 주장하는 건강부회일 뿐 설득력이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적어도 1991년 1월 1일 현행 가족법 시행 이후의 호폐주장은 여권주의, 평등주의를 넘어서 여성과 자녀의 행복과 평등한 권리 실현이 아닌 여성과 자녀의 불행과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주장이며, 이미경안보다 법무부안(부성원칙)이나 2번씩 유보했던 국무회의안(가조개념)이 나온 듯 하지만, 세대를 초월하는 가계계승개념인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결국 서구와 같이, 금수와 같이 한시적 계약관계의 가족으로 전락하여 회생, 사랑, 인내라는 더 큰 지혜로서 더 큰 행복, 더 큰 가치를 창출해왔던 우리 민족의 전통 얼, 정신적 가치의 소멸우려는 다를 바 없다. 전통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맹인과 같다(탈무드, Talmnd)라는 말과 같이 전통이나 관습, 가족제도는 수천년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혜로운 선택으로 계승 발전되어 온 것이며 가족법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 개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 전체의 행불행, 성공실패, 안정과 혼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10년 20년동안 역사와 민족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사, 연구, 토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1년 4월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위헌심판제청도 아직까지 심의중인데, 2003년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개월만에 위헌의견을 현재에 제출한 것은 크게 지탄받을 정치적 행태라고 본다.

4. 호폐론자들의 주장인 호주제가 중국 종법제와 일제의 잔재라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며, 언필칭 가부장제, 남성월주의, 남아선호상이 여성의 모든 불행의 원흉이라고 하지만, 한국에는 서구와 같은 가부장제는 현재는 물론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남편에게 가장권이 있다면 한국의 부인에게는 5가지 주부권이 있는 바, 1친정의 성씨보존권, 2가사운영 경제권-월급봉투제 3자기(개인) 신앙수호권, 4자녀양육 교육권 5신분존중 우대권-안방점유권 등이 있어 서구는 물론 중국, 일본보다도 여성의 지위와 권위가 보장된 나라다. 남아선호사상 또한 지구촌 여러나라가 공통이며, 같은 문화권인 중국엔 호주제 없어도 남아선호사상이 한국보다 더 하고 낙태율도 더 높다고 한다.

5. 육설중의 큰 육설이 성을 갈 놈 인데 정부가 나서서 성을 갈라니 도대체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이겠으나, 자녀의 복리를 빙자해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도, 한민족 전래의 성(姓)불변 원칙을 파괴하고, 수직적으로 선조들의 경험, 역사, 지혜를 전수받아 수경적으로 가족과 친족 이웃과 향유하며 후손으로 계승되는 가족과 나의 뿌리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 보다는 인격, 정서적 불안만 조장하기 쉽다.

(국회보2003년 10월호)와 동아일보 문화일보(10월9일자)에도 같은 내용으로 게재되었음

###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 族譜 出版의 元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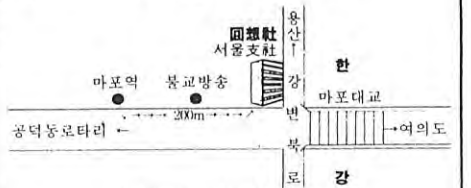
#### 回想社 6大 特徵

1. 創立 47年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로 迅速, 正確한 電子組版으로, 族譜 出版界의 一大革新
3. 春田體(漢文47,163字)開發 및 族譜프로그램으로 모든 辭字 完全解決
4. 編輯, 淨書, 出版, 印刷, 製冊 등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5. 原稿에 謬誤가 있을시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 確保
6. 1,000餘坪 以上の 넓은 倉庫를 頒快完了에 까지 無料로 便宜提供

\*컴퓨터만 있으면 索引을 통하여 派, 世, 代를 檢索할 수 있는 CD를 製作하여 드립니다. (既 發刊된 族譜도 CD製作)

#### 回想社 서울支社 移轉

서울地域에서 族譜編輯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의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아늑하고 快適한 곳으로 移轉하여 各 門中의 收單, 淨書, 編輯,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저 하오니 많은 聲援과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 하차 4번 출입구로 나오셔서 마포대교 옆 강변한신코아 1412호입니다.

族譜, 古書 回想社 出版, 製冊  
 본사: 大田廣域市 東區 中洞 47-4  
 電話(042)253-9881 ~ 3 Fax(042)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지사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 (02) 718-9881 Fax (02) 718-9882